

“생활비 때문에” 대학생 10명 중 6명 ‘주독야경’

〈書讀夜耕〉

전남대 경영학과에 재학중인 김희수(23)씨는 2학기가 개강했지만 방학동안 해왔던 식당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로 했다. 고물가에 식비를 아끼고 약속을 취소하는 등 지출을 줄였지만 매달 부모가 주는 50여만원으로는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씨는 “최근 월세가 10만원 가량 올랐고 밥 한끼만 먹으려고 해도 만원은 필요하다”며 “강의가 없는 금요일과 주말을 이용해 알바를 하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 드리려 한다”며 웃어보였다.

조선대 행정학과에 다니는 안만선(26)씨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친구와 술자리를 피하고 점심 도시락도 가장 싼 메뉴를 사먹는 등 소비를 자제했지만 생활비로만 60만원 가량을 썼다. 안씨는 부모님께 받는 용돈 40여만원으로는 식비, 교통비 등 필수 지출을 충당하기도 힘들어 지난 7월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학기가 시작했지만 카페에 계속 출근하기로 했다. 안씨는 “공부하면서 일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고물가에 어쩔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등록금·방세 등 부모 지원에도 고물가에 식비·교통비 해결 안돼 10명 중 9명 “개강해도 알바” 국가 장학조건 완화 등 대책 시급

광주·전남지역 대학교가 2학기 개강을 했지만 대학생 대다수가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원에도 연이은 고물가에 등록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학기 중에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서 최근 전국 대학생 5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89.8%)이 2학기 개강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개강 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학생들 중 73.2%는 학기 중에 쉽게 병행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기가 시작해도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계획을 세운 이유로는 생활비 및 용돈을 벌기 위해서가 61.9%, 유학·여행·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한 목돈 마련이 35.9%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계속되는 고물가 행진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대학생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노력해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 13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했고, 그 중 731명인 대학생은 709명(97.0%)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답한 709명의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월평균 54만원 가량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이은 고물가로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장 월세,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에 생활고에 내몰리고 있다”며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는 국가 장학 조건을 대폭 낮춰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zang@

광주고검장 홍승욱·광주지검장 박종근 임명

홍승욱(50·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방검찰청장이 광주고등검찰청장에, 박종근(55·28기) 부산지방검찰청장이 광주지방검찰청장에 보임됐다.



홍승욱 광주고검장 박종근 광주지검장

구자현(50·29기) 대전고검 차장검사는 광주고검 차장 겸사로 임명됐다. 법무부가 4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40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7일이다. 이번 인사에서 관심을 모은 송경호(53·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심우정(52·26기) 인천지검장은 1년 여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 전보됐다. 대검 반부패부장인 양석조(50·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수사부장은 박기동(51·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임했다. 신임 대검차장을 비롯해 연수원 26~28기 검사 4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임관혁(57·26기) 서울동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승진 배치됐다. 김석우(51·27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올랐다. /정병호 기자 jusbh@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구상엽(49·30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는 14명이 발탁됐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29기 3명, 30기 11명이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 했다”며 “업무능력, 고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2주 뒤 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정윤영 기자 zzang@



서이초 교사 49재 및 광주 추모집회가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됐다. 검은 옷으로 통일해 입고 집회에 참석한 4000여명의 광주지역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양금덕 할머니, 국민 자존심 지켜줘 감사”

인천 60대 일용직, 광주 강제동원 시민모금 사무실에 편지·성금

“국민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자필로 쓴 편지가 지난 1일 광주시 서구 화동동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 도착했다. 편지봉투에는 5만원권 2장이 들어있었다. 자신을 청소노동자로 소개한 전모(62)씨는 “언론을 통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잘 알고 있다. 시민모임 활동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썼다.

그는 “양금덕 할머니가 그런 추잡한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으렵니다고 했던 말씀에 너무 감동했다”며 “할머니의 말씀이 국민들 자존감을 지켜 주었다”고 양 할머니에게 감사했다. 시민모임 등을 포함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피해자들의 투쟁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역사정의의 위한 시민모금’을 시작했다. /정윤영 기자 zzang@

광주·전남서도 공교육 회복 목소리

추모 행사 잇따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광주·전남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교원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방과 후 시간대인 이날 오후 5시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광주교총,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실천교사, 광주교사노조 주최로 열리는 추모 행사에는 교사 등

4000여명(추최 추추산)이 참석했다. 같은 시각 전남교육청 앞에서도 전교조 전남지부 등이 주최하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교육청도 교육단체 행사와 별도로 추모 공간을 마련하거나 추모 행사를 열었다. 광주교육청은 이날 오후 광주시민협력지원센터 앞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교원 회복 등을 다짐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이날 7개 초등학교가 재량휴업을 했다. 광주 교원 998명이 이

날 연가·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교육청은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긴급 상황반을 운영하고 장학사 등 전문직과 교육행정직원 150명, 퇴직교원 199명, 초등 순회교사 30명 등을 학교에 지원했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재량휴업 학교 교사는 물론 다른 학교 교사들도 개인 자격으로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추모 행사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모 행사에 참여한 만큼, 구체적으로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